

복음나누기와 소공동체 운영원리

미래사목연구소 소장 차동엽 신부

I. 소공동체의 원리와 기능, 활성화 방안

1. 소공동체의 이해
2. 소공동체의 수렴 및 파견 기능
3. 소공동체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이다
4. 소공동체의 통합적인 기능
5. 소공동체의 조직화

II. 현대 신자교육법과 단계적 성장 교육

1. 현대 신자교육법
2. 단계적 성장 교육의 실제

III.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운영원리 EP-1234

I. 소공동체의 원리와 기능, 활성화 방안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기초신학자 메츠(J.B. Metz)가 '작은 예언자'의 시대, '작고 이름 없는 성인'의 시대, '바닥'의 시대의 도래를 예고했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소공동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한 것과 다름없다. 저 전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대가 소공동체요, 그것을 실현하는 주체가 소공동체인 것이다. 왜냐하면 소공동체는 평범한 신자들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장(場)이 되기 때문이다.

'소공동체'의 원리와 기능 그리고 어떻게 소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자.

1. 소공동체의 이해

서울 대교구 소공동체 사목 사령탑의 일원인 전원 신부에 의하면, 소공동체의 '소(small)'는 1)규모면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공동체, 즉 소수이기에 상호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공동체의 주체로서 체험되게 하는 것, 2)'소(small)'가 표현하는 의미처럼 작은 이들, 보잘 것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놓치지 않고 공동체의 중심에 두는 것, 3)하느님 앞에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임을 고백하는 아나빔(anawim)의 공동체라는 것, 4)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 공동체 즉 가정공동체 이웃공동체를 세포조직으로 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튼튼하게 성장시키는 것 등을 지향한다. 즉 “겨자씨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마태13,32)처럼 소공동체의 ‘소’는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겨자씨이며 누룩이고 밭에 묻힌 보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공동체는 작고 보잘 것 없는 풀뿌리와 같은 이들을 공동체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를 지니며,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에 따라 누구나 인격적 주체이며 책임자로서 참여해야하는 교회구조라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소공동체는 강우일 주교가 2004년 소공동체 심포지엄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방법론이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공동체는 “교회의 외적인 조직보다 내적인 체질의 개선”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며, 따라서 “한국교회가 활성화하려고 애쓰는 소공동체는 그런 교회 역사의 본류의 중심을 함께 살아가는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강우일, <한국 천주교 소공동체 도입에 대한 성찰> , 19-20).

요컨대, 소공동체는 개인적이고 형식적이며 본당 중심적이고 의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공동체적이고 역동적이며 현장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이런 전망에서 소공동체의 존재와 역할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기술되는 구체적인 기능들은 이런 입장을 전제하고 있음을 확인해 둔다.

2. 소공동체의 수렴 및 파견 기능

소공동체는 세포조직으로서 본당조직 및 뉴 리더십과 함께 교회유기체의 ‘줄기’를 형성한다. 이 ‘줄기’는 ‘뿌리’로부터 기도(영성) 및 은사를 수렴하여 이것을 통합·조정된 후, 다시 ‘가지’로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도해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 흐름 안에서 소공동체의 역할은 분명하여 진다.

첫째는 수렴기능이다. 곧 신자들의 기도(영성) 및 은사를 수렴하여 본당의 사목역량으로 통합시키는 일이다.

둘째는 파견사명의 실행기능이다. 곧 사목(협조)자들에 의해 통합·조정된 본당의 사목역량을 분배·파견 받아 교회의 4대 사명을 실행하는 결실을 맺는 일이다.

한마디로, 소공동체는 신자들의 영성 및 은사를 「수렴」 하고 「발휘」 시키는 최일선의 조직이요 세포조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공동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본당공동체는 활력을 잃게 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 소공동체가 항상 본당조직과 뉴 리더십의 중간 계통을 통해서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유기체적 연계 속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적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것은 묵시적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3. 소공동체는 전략이 아니라 생존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것은 소공동체가 단순한 전략(戰略)이 아니고 생존(生存)이라는 사실이다. 전략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생존은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길을 말한다.

왜 그런가? 중·대형 교회로는 모든 것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개신교에서는 신자수가 500명만 넘어도 중·대형교회로 쳐주는 관인데, 가톨릭교회에서는 1000명의 신자가 있어도 소형교회로 치부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이는 비극이며 슬픔이다. 진정한 사목(司牧)은 거의 불가능하고 방목(放牧)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성서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한다.

첫째, 이드로의 권고이다. 분담과 위임의 원칙이다. 나누고 분담하고 위임하였기에 모든 일들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 주는 것이 좋겠네. 천 명을 거느릴 사람, 백 명을 거느릴 사람, 오십 명을 거느릴 사람, 십 명을 거느릴 사람을 세우게.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 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 짐을 덜도록 하게.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 갈 것일세”(출애18,21-23)

둘째, 야훼 하느님의 직접적인 돌봄이다. 야훼께서는 사제의 무관심 속에 상처받고 헤매고 길 잃은 양들을 몸소 돌보시겠다고 나서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내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아픈 것은 힘나도록 잘 먹여주고 기름지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을 다하리라”(에제 34,15-16).

그런데 어떻게 손수 양들을 돌보시겠다는 말씀인가? 보는 눈,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른 「소공동체」가 떠올라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복음 말씀과 성령의 감도를 통하여 야훼께서 직접 양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탁월한 장(場)이 바로 소공동체이기 때문이다.

4. 소공동체의 통합적인 기능

소공동체는 구성원 개개인을 성장시키고 필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본당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최일선 세포조직이다. 이 소공동체는 단지 교회의 말단조직으로서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는 수동적인 기능만을 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당 사목과 관련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소공동체는 필요한 은총을 자급자족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현재의 사목적 상황속에서 신자들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기 딱 알맞다. 교구마다 사제 1인당 신자수가 평균 1500에서 2000여명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사제가 아무리 열심히 뛰더라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공급해 주지 못할 바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바로 소공동체에게 그 기능을 위임하는 것이 그 길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약속해 주셨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18,20).

소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있을 때 그분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소공동체에서는 그동안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었던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기도로 채우면서 뜨거운 은총을 나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통해 자라나게 된다. 작은 공동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삶에서 오는 갖가지 슬픔과 상실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혼자의 고립에서부터 공동체가 주는 위로와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신자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소원을 소공동체에 가져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청할 것이다. 이것이 서로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그리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소공동체가 영적 은총을 자급자족하는 장이 되는 것은 결코 이상(理想)만은 아닌 현실(現實)로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각자 안에서 다르게 나타나면서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소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성령이시다.

둘째, 소공동체는 자율적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세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소공동체는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탁월한 장이다.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각자는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자기 내면 깊은 곳의 상태를 살피고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말씀을 접할 때는 심오한 일이 일어난다. 하느님과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알아듣게 된다.

소공동체 안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신다. 소공동체 안에서 구성

원들은 서로에게 진리의 통로역할을 하게 된다.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의 행동과 말과 태도를 경험한 후 들려주는 피드백은 서로에게 값진 정보가 되는 것이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 안에 발생하는 어떤 정서나 반응이나 습성을 인식할 때도 우리는 종종 ‘아하’ 무릎을 치게 된다. 이는 우리가 소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소공동체에 단계별 자율학습 교재를 계획성 있게 제공하여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이루도록 해주는 일이다. 이는 자칫 복음 나누기만을 하면서 지루함과 회의에 빠지기 쉬운 신자들에게 영적 성숙을 향한 커다란 기대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참고적으로 이미 4단계 교재까지 공급하고 있는 인천교구의 경우 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3단계 교재에서 심도 깊게 다루었던 신홍영성의 문제점과 가톨릭적 영성 대안에 대한 교육은 도처에서 ‘예방교육’으로서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90%대를 훨씬 웃도는 구반장교육 참석률은 단계적 프로그램 교육이 신자들에게 얼마나 매력 있는 것인가를 웅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셋째, 소공동체는 사명을 깨닫고 수행하도록 돕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소공동체는 하느님이 불러낸 하느님 백성들의 모임이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1고린 1,2).

하느님 백성에게는 특권과 사명이 동시에 주어져 있다. 곧 소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하느님 백성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태5,13).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5,14).

구체적으로 이 사명은 복음 증거(Martyria), 전례(Liturgia), 친교(Koinonia), 섬김(Diakonia) 등 네 가지로 구현된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있게 될 것이다.

소공동체는 신자 개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연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신의 사명으로 깨닫도록 도울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5. 소공동체의 조직화

그렇다면 어떻게 소공동체를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사실 소공동체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마냥 기다린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소공동체는 교구나 본당 차원에서 하향적으로 건설하고 성장시키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또한 바닥에서부터 자생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공동체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영감을 불어 넣고 방향을 설정해주는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움직임을 체계화하고 시스템화 시켜주지 않으면 활동을 시작하고 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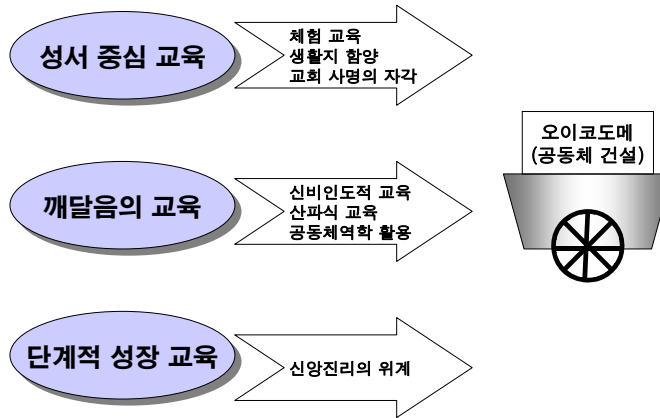
체를 창조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당을 소공동체 중심의 구조로 만들려면, 위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서, 아래로부터의 자율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生長)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위로부터의 개입 정도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구성원들의 신앙비전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수위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 현대 신자교육법과 단계적 성장 교육

1. 현대 신자교육법

교회 공동체는 마치 사람의 몸과 같이 지속적으로 새로이 성장하며,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교회 성장을 위한 영양 공급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신자 교육이다. 하지만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신자 교육은 나름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데, 좋은 신자 교육을 위해서는 성서 중심의 교육, 깨달음의 교육, 단계적 성장 교육이라는 3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림>은 이 세 가지를 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이다.

<그림 > 추진력 공급의 3원칙



1) 성서 중심 교육

(1) 왜 교리 중심 교육을 극복해야 하는가?

오늘날까지의 신앙교육은 신학과 교회를 지배해 온 신스콜라 사상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래서 교도권에 의하여 확정되고 형성된 신앙의 정통 교의(독: Orthodoxie)를 가능한 한 오류 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교리교수의 대상자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전수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신앙교육은 주어진 질문에 대해 이미 작성된 대답을 외우게 하는 요리

문답식 교수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신앙교육은 자연히 신앙 교리를 외워서 덧셈 방식으로 양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독일권의 많은 학자들은 1993년 발간된 최신판 「가톨릭교회교리서」도 이런 관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로 돌아갔다고 지적한다.

이런 식의 신앙교육 방식은 현대 사회의 조건 하에서는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독일 교리교수의 권위자 디터 에마이스(Dieter Emei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미성숙성은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 앞에 믿을 교리로 선포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해야 했던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할 권리가 없었다. 신앙의 언어는 그야말로 철저히 교도권의 언어가 되어 버렸다.” 신앙 행위에서 이제 하느님 백성이 병어리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서구교회에서는 성서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성서 속의 신앙체험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신앙의 역동성과 생활 관련성을 되살려줄 수 있다는 기대를 성서 중심적 교육에 걸고 있다.

(2) 성서 중심 신앙 교육의 지향

신앙은 신앙 교리를 단순히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전체 실존을 포괄하는 존재의 기획, 신약성서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를 뒤따르기’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 중심 신앙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㉔ ‘생활지’(生活智; Lebenswissen; Knowing how to live)를 함양하는 것이다. 즉 삶 자체를 배우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꾸려 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생활지’의 경쟁 상황 하에서 그리스도교적 믿음이 우리를 삶의 파괴와 무의미화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참 생명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행동 지침만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삶을 소재화하고 성찰하며, 삶을 끌어안고 풍요롭게 하는 ‘체험 중심’의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㉕ 교회 사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기본 사명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적인 현상인 거대한 조직 교회에 대한 형식적인 소속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적상의’ 교회 소속감은 항상 새롭게 ‘획득된’ 소속감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삶에 대해 지표와 도움을 제공하고 교회적인 사명을 일깨우는 신앙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성서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서는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만이 아니고 해방과 치유의 체험, 이웃 사랑의 실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체험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이다. 이 성서 중심적인 교육은 성서 구절이 어떻게 각각의 참가자에게 감화를 주었는지, 경종과 소명을 주었는지 등에 대한 체험 나누기를 주축으로 삼되, 상호간의 격려와 보충 그리고 시정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참여자들은 서로 간에 신앙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 성서 묵상을 통해서 얻은 신앙체험은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사도 4,20), 또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느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이 새로운 열정은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빛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 나라 구현을 위한 누룩(마태 13,33)

이 되도록 도와준다. 이 마음의 뜨거움은 바로 예수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도록 몰아붙인다.

2) 깨달음의 교육

깨달음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나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교육을 뜻한다. 이 교육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을 지향한다.

(1) 신비 인도적 교육

우선 ‘신비 인도’라는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신비 인도’는 라너(K. Rahner)에 의하여 신학적인 무게를 얻게 된 독일어 ‘미스타고지에’(Mystagogie)의 우리말 번역이다. 본디 이 단어는 ‘신비’를 뜻하는 희랍어 ‘미스테리온’(mysterion)과 ‘인도하다’는 의미를 지닌 희랍어 ‘아게인’(agein)을 합한 합성어의 독일어식 명사형이다. 그러니까 ‘신비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신비’로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신비’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단어를 전혀 엉뚱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신비’는 하느님의 신비를 가리킨다. 파악 불가능하고 접근 불가능한 영역을 일컫는 인식론적인 의미에서의 ‘신비’가 아니라, 탄생의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각자의 삶 안에 내주(內住)하시는 하느님 현존을 지칭하는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신비’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생명과 은총과 부르심의 원천으로 작용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하느님의 ‘신비’는 하느님이 우리 안에 현재하심과 더불어 우리 안에 선사된 소질과 은사 그리고 원초적 부르심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데리고 공동체와 세상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의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도’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계발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비 인도적 복음화는 복음을 사람 안으로 이식(移植)하려는 시도와 거리가 멀다. 즉 외부로부터 복음적인 지식, 가치, 사명감 등을 사람 안으로 집어넣으려 하는 ‘주입식’ 복음화가 아니라, 이미 각자의 심층에 잠재해 있는 복음적 요소를 발굴하도록 돕고 끄집어내는 ‘산과식’ 복음화를 말한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신비 인도적 복음화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예수는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특별한 주의(注意) 없이 스쳐 지나갔던 일상생활의 자잘한 사건들, 인간 요소 및 자연 요소들에 눈을 돌려 섬세하게 살피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쇄신시키고 인도하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도록 산과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한다. 그리움, 희망, 회한 등이 교차되는 일상생활의 우여곡절 속에서 하느님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기록해 온 사랑의 역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신비 인도적 복음화이다.

이렇게 볼 때, 신비 인도적 복음화에서 열쇠가 되는 것은 과거의 ‘체험’을 새롭게 음미하고 소화하는 일이다. 여기서 체험을 ‘일상 체험’(Alltagserfahrung), ‘임계 체험’(Grenzerfahrung), ‘그리스도교적 체험’(Christliche Erfahrung)으로 구별하여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종교교육학자

들의 접근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첫째, ‘일상 체험’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체험들, 즉 먹고 만나고 장보고 구경하고 하는 등의 일상 체험들을 말한다.

둘째, ‘임계 체험’이란 심각한 질병, 이별, 죽음, 해고, 실직 등의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여 존재론적 고민을 하게 되는 체험을 말한다.

셋째, ‘그리스도교적 체험’이란 죄의 용서, 문제의 해결, 한계 극복 등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은총의 체험을 일컫는다.

신비 인도적 복음화는 이런 구별을 받아들여서 ‘일상 체험’과 ‘임계 체험’을 반추함으로써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체험’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찾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예컨대 세속 생활에서의 실패와 성공을 심판과 은총에 대한 성서 속의 진술들과 연결 지어 성찰하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 감춰져 있는 신앙적인 요소의 깊이와 역동성을 발견하게 한다. 따라서 신비 인도적 복음화 방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남과 숙명적 죽음, 행복과 고통, 기쁨과 슬픔, 자유와 억압, 사랑과 미움, 죄와 용서, 희망과 좌절 등의 체험을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비 인도적 복음화, 교육, 또는 성서 묵상은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개방적 전망을 갖고서, 우리 앞에는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약속으로써 더 위대한 미래가 놓여 있다는 ‘희망의 원리’와 신뢰를 가지도록 참가자들을 인도하는 시도이다. 신약성서는 바로 이 미래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언표로서 상징화하였다.

(2) 산파식 교육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행위이다. ‘깨달음’은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의 차원을 넘는 현상이다. 곧 언행(言行) 일치의 인식이다. 말하자면 ‘생활지’의 습득이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산파식’ 교육을 지향한다. 이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순조롭게 출산하도록 돕는 것이 산파의 역할이듯이, 교육자는 이미 사람의 체험이나 의식, 무의식에 준비되어 있는 ‘깨달음’을 조산(助産)하는 역할을 하도록 힘쓴다.

(3) 공동체 역학에 따른 교육

공동체적 삶을 위한 추진력은 그룹 역학(그룹 다이내믹)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룹 다이내믹’에서는 ‘나’, ‘우리’, ‘그것’(=‘내용’)의 삼각관계가 중요하다. 여기서 성서 중심적인 교육에서 그룹 역학을 이용하여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참여자 각각을 의미하고, ‘우리’는 구성원 전체를 말하며, ‘내용’은 성서 본문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 3요소가 모두 ‘주체’의 자격으로 삼각관계의 꼭지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성서 본문은 ‘탐구 대상’이 아니라 대화 중에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는 대화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이렇게 봤을 때,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이 삼자의 만남, 관계, 상호 작용 및 교류를 효과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 셋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절대 균립하는 주체로 자신을 내세워서 안 된다. 나, 우리, 본문, 각각이 돌아가면서 대화의 주인이 되고 또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 끊임없는 상호 작용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질문을 말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자신이 깨달은 점을 대화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다음, ‘우리’와 ‘본문’의 반응(Reaction)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상호 작용의 흐름에 참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본문’(정확히 말해서 ‘본문’이 자신에게 말해 준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판단 그리고 체험을 ‘우리’ 앞에 스스로없이 내어 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그룹 역학을 살린 성서 공부의 특징은 본문의 이해나 해석이 철저하게 상호작용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때문에 체험, 질문, 의견 따위를 6~10명의 대화 그룹에서 활발히 교환하는 것이 본질적인 요건이 된다. 이러한 교류는 한편으로는 ‘우호연대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호연대적인 나눔을 통해서 각 개인은 자신의 체험을 확장시키고 올바르게 파악하고 심화시키고 때로는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비판적인 나눔을 통해서 성서와 삶을 선부르게 감정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용해시켜 버림으로써 성서 본문의 뜻을 왜곡하거나 읽는 사람 자신들의 자유와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육은 그룹으로 나누어 교육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나눔 교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① 나눔 가운데서 ‘강화’가 이루어진다. 즉 알고 있는 교리지식이 더욱 확실하고 강하게 인지(認知)된다.
- ② 나눔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부족하게 알고 있던 내용들을 수정, 시정, 보완되는 기능이 있다.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한다’는 강박적 의무감을 갖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선하신 뜻에 함께 함으로써 성령의 역동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화와 나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귀 기울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발표를 강요받지 않는 한에서 전체 의견에 대한 개인들의 솔직한 견해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룹 역학을 이용한 성서 공부는 어떤 전문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3) 단계적 성장 교육

교리교육이 일관성이 없고, 부실한 것은 교리의 중복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리교육은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우는 식의 단계적 성장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랑	교육 방법을 거꾸로 진행하고 하나의 단계가 목표달성
2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되면 살를 붙여 다음단계로 나가는 형태이다
10	십계명	특히 율법은 생활(삶)속에 파고들어 구체적으로

613	율법	실천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	-----------------

또 다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대 교리:천주존재,삼위일체,상선벌학,강생구속	↑
사도신경:전능하신 천주 성부.....	↑
지킬계명, 믿을교리: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육	↑

이 도표에서 위의 것일수록 상위진리에 속하고 아래로 갈수록 하위진리에 속한다. 상위진리를 확고히 심어준 다음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내려오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된다. 그래야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생긴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교육을 하셨다.

4) 전인적 교리교육

(1) 인간 영혼의 능력과 신앙의 3차원

- * 지성 → 지성적 믿음 = 진리(교리) 수용: 4대 교리, 사도신경, 가톨릭교리, 성서 등
- * 정서 → 정서적 믿음 = 신뢰의 관계: 사랑, 의탁, 위로, 평화 등의 현존 체험
- * 의지 → 의지적 믿음 = 기도/신앙실천: 응답받는 기도/표양, 실행

(2) 통합적 교육

통합적 교육은 좌뇌와 우뇌를 종합한 교육을 지향함.

- * 지성적 믿음의 형성을 위하여 좌뇌활용: 이론과 체계
- * 정서적—의지적 믿음의 형성을 위하여 우뇌활용: 오관, 직관, 상상력

이 둘은 분리되어 이루어지기보다 서로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함.

- ➡ 그래서, 「여기에 물이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우뇌), 교리 개념(좌뇌), 성서 인용(우뇌), 삽화(우뇌), 핵심 도해(좌뇌 + 우뇌)를 활용하는 것이다.
- ➡ 가장 효과적인 통합교리를 위해 '나눔 길벗'을 활용한 나눔 교리를 하는 것이다. 예습할 때 주로 좌뇌 교육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나눌 때 '좌뇌 + 우뇌' 교리가 이루어진다.
- ➡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지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문제는 쉽게 청산된다!

2. 단계적 성장 교육의 사례

인천 교구는 소공동체 교재로 '단계적 성장 프로그램 교재'를 활용하여 신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단계적 성장 교육소개

- 1단계: (2002) 공동체 의식 깨우기
- 2단계: (2003) 공동체 신앙 키우기
- 3단계: (2004) 신앙 인격 다지기
- 4단계: (2005) 성서에 답이 있다

2) 단계적 성장교육 교재의 구조

(1) 밀알하나가

「밀알 하나가」는 뭉뚱그려 말해서 자신의 마음이나 의식 속에 있는 ‘밀알’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는 막연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 또는 선지식을 풀어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멀리서 숲을 보고 눈에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다. 즉, 선명치 않은 첫인상을 마음을 열고 풀어놓는 작업이다. 풀어놓는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도 좋고 확인되지 않은 것이어도 좋고 객관적일 필요도 없다. 본인이 느낀 대로, 본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솔직히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대화 인솔자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참여자들이 자신 있게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2)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는 각 과의 주제와 관련하여 내 안에 지니고 있던 ‘밀알’이 복음이나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밀알’ 곧 선입견이나 선지식이 객관적인 진리의 ‘땅’을 만나면서 보다 넓고 깊은 ‘이해’(파악, 깨달음)으로 발육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는 「땅에 떨어져」작업을 통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난 밀알이 마침내 삶의 결실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땅에 떨어져」에서 도달된 ‘이해’(파악, 깨달음)가 상징이나 이미지로 전환되어 우뇌에 저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좌뇌에 입력된 정보보다 우뇌에 입력된 정보가 보다 쉽게 실행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뇌에 저장된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실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III.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운영원리로서 EP-1234

1. 본당 활성화 모델 EP-1234의 구성

EP-1234는 본당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다. 여기서 EP는 사목 전체를 총괄하는 사목 비전을 말하고, 1234는 교회유기체(ecclesiastical organic body)의 각 기관(organ)에 배속되는 열 가지 교회 활성화 인자(factor)를 말한다. 하나씩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EP

EP는 복음적 사목(Evangelical Pastoral)의 약어이다. 복음적 사목은 앞으로 설명될 열 가지 교회 활성화 인자들 하나하나를 복음의 원리에 의존하여 '사목적으로 돌보는 것'(pastoral care)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목적 돌봄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복음적 비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열 가지 활성화 인자들 각각을 위한 비전을 복음에서 찾아내고, 그 비전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1234

교회유기체의 각 기관에 배속되는 10 가지 본당 활성화 인자는 '토양'에 배속되는 것 하나(1), '뿌리'에 배속되는 것 둘(2), '줄기'에 배속되는 것 셋(3), '가지'에 배속되는 것 넷(4)으로 나뉜다. 차례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토양'에 배속되는 것 하나(1): 성령
- '뿌리'에 배속되는 것 둘(2): 기도(영성), 전신자은사계발
- '줄기'에 배속되는 것 셋(3): 소공동체, 기능적 조직, 뉴리더십
- '가지'에 배속되는 것 넷(4): 수요중심 선포, 은총의 축제, 고감도 사랑, 토털서비스

EP-1234 본당 활성화 방안에서 지향하는 복음적 비전교육은 10가지 본당 활성화 인자 각각에 대한 복음적 비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진술될 10가지 본당 활성화 인자들에 대한 내용은 복음에서 추출된 비전인 만큼 모두가 숙지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 교회 활성화 인자가 전체 교회유기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는 것이다. 어디에 배속되느냐에 따라 '토양'으로 상징되는 기능, '뿌리'로 상징되는 기능, '줄기'로 상징되는 기능, '가지'로 상징되는 기능을 맡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언급된 10가지 인자들이 유기체적인 질서(뿌리 → 줄기 → 가지) 안에서 서로 지원하고 열매 맺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다. EP-1234 교회 활성화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계통적 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최적화(optimization)시키는 일이다.

3) 10가지 교회 활성화 인자: 교회 활성화 10계명

- 제1계명: 성령이 현동하게 한다.

- 제2계명: 합심하여 기도한다.
- 제3계명: 전신자의 은사를 일깨운다.
- 제4계명: 소공동체를 세포교회로 삼는다.
- 제5계명: 조직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라.
- 제6계명: 리더십을 업데이트(update) 한다.
- 제7계명: 수요(需要)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
- 제8계명: 전례의 은총을 극대화한다.
- 제9계명: 신자들 간의 사랑지수를 높인다.
- 제10계명: 토털서비스를 제공한다.

4) 본당 활성화 방안 EP-1234 교육

본당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사목자와 사목위원 그리고 구 반장들을 위해 EP-1234 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EP-1234'는 공허한 이론적 기획이 아니다. 'EP-1234'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교회들의 '성공비결'을 원리적으로 종합한 사목모델이다. 'EP-1234'를 따르기만 하면 본당 활성화가 가능하다. 어떤 본당이든지 할 수 있다.

• EP1234 •

(본당 활성화 모델: Evangelical Pastoral)

